

프로젝트갤러리 2018 하반기 기획전시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전 언론보도 (붙임 3)

1. 네이버 공연전시, 전시이야기 시리즈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99966&memberNo=37451778&vType=VERTICAL>

## 풍수지리와 과학 기술의 공통점은?...데이터 중독 사회에 질문을 던지다



네이버 공연전시 · 8만 팔로워  
2019.01.16. 17:59 | 4,193 읽음



전시전경. | 서울시립미술관

미래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은 인간의 본성인 걸까요? 수 세기 동안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 그 시대의 가장 최신 기술로 미래를 점쳐오곤 했습니다. 고대의 점성술을 시작으로, 심령술, 동물점, 사주 팔자, 타로를 비롯해,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

대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첨단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만, 독특하게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전통적인 구시대의 방법은 사라지지 않고 기술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 예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를 미학적으로 재조명하는 전시, 2019년 2월 6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글자>를 소개합니다.



전시전경. |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에 참여하는 두 명의 작가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설치 미술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출신 작가인 파비오 라탄치 안티노리(Fabio Lattanzi Antinori)는 가장 최신의 기술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작품명은 <퓨처 서치(Future Search)>. 그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들을 조사해, 인기 도표의 형상을 딴 형태로 프레임과 패턴을 제작했습니다. 단어의 검색량과 검색자의 관심도는 비례한다는 전제하에, 이 단어들의 시장 가치와 유의미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파비오 라탄치 안티노리, 퓨처 서치, 2018. 3개의 구조물, 스크린 프린트, 전도성 페인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2채널 스피커, 가변 설치 | 서울시립미술관

〈퓨처 서치〉 구조물 위에는 마치 바코드와 같은, 흑백의 패턴이 출력된 종이 가 걸려 있습니다. 이때, 관람객이 종이 위에서 어떻게 손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작품에서 나오는 화음의 소리가 달라지는데요, 작품에서 재생되는 소리는 안티노리와 협업한 국내 성악가들이 숫자와 기호를 모든 음역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관람객의 취사선택에 따라서만 특정 음역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은, 데이터가 이용자의 선택과 신뢰에 의해서만 유효하다는 부분과 상통합니다. 작가는 〈퓨처 서치〉를 통해 현대인들의 욕망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데이터의 무의미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파비오 라탄치 안티노리, 퓨처 서치, 2018, 3개의 구조물, 스크린 프린트, 건도성 페인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2채널 스피커, 가변 설치 | 서울시립미술관

한국의 추미림 작가도 이번 전시에 함께합니다. 그는 전시 공간인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의 공간적 요소를 풍수지리 이론으로 해석해, 작가 자신이 바라본 도시의 모습과 중첩시킨 설치 작품 <9가지 컬러 스펙트럼>을 선보입니다. 관람객 각자에게 필요한 길흉화복의 요소를 안내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작가는 이토록 기술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암묵적으로 믿고 따르는 풍수지리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고정불변할 것 같았던 풍수지리의 요건과 기준이, 마치 오늘날의 데이터처럼 시대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추미림, 9가지 컬러 스펙트럼, 2018, 시트지, 22x3.7m.2018. | 서울시립미술관

추미림 작가는 <9가지 컬러 스펙트럼>을 제작하기 위해 전시 공간을 풍수학의 각 요소에서 추출한 9가지의 색의 스펙트럼으로 분할하고, 시스템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나타나는 전자파의 움직임과 데이터의 용

추미림 작가는 <9가지 컬러 스펙트럼>을 제작하기 위해 전시 공간을 풍수학의 각 요소에서 추출한 9가지의 색의 스펙트럼으로 분할하고, 시스템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나타나는 전자파의 움직임과 데이터의 용량을 차지하는 픽셀의 모양에 모든 스펙트럼을 중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바(Colour bar)를 벽과 바닥에 이어 붙였는데요. 입체를 표방하는 작품의 모든 요소를 평면의 시트지로 제작해 기존의 방식을 뒤집은 점이 눈길을 끄니다. 특히 본 작품은 전시장의 구조와 규모에 맞춤 설계해 설치된 장소-특정적 작품이기 때문에 전시의 종료와 함께 폐기되며, 따라서 이번 전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작품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추미림, 9가지 컬러 스펙트럼, 2018, 시트지, 22x3.7m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전 설치 내 작품 세부 | 서울시립미술관



추미림, 9가지 컬러 스펙트럼, 2018. 시트지, 22x3.7m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전 설치 내 작품 세부. | 서울시립미술관

전문가들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물질 자원을 삶의 원천으로 삼던 과거에서 벗어나,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수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온 것이죠. 무형의 자원인 데이터는 편리함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명 인간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지만, 표본의 작은 오류나 거짓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에 대다수의 사회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대인의 맹목적인 데이터 '맹신'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사실에 기반한다'는 전제를 삶 전반에 살고 갈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요.

“

영원불변하는 진리는 없다

- 칸트

”

데이터 시스템이란 본디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예측하려는 무모함과 더 많은 자본을 얻기 위한 욕망을 기본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다량의 데이터 생산, 유포, 수집은 거대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일말의 오류가 삽입되면 전체 데이터의 신뢰도는 낮아지게 되고, 우리는 거짓된 정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직면한 미래라고 믿죠. 이를 알아차릴 만큼 날카롭게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전시를 통해 '데이터 맹신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데이터의 진실성과 유의미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 2. 트래블바이크뉴스

<http://www.travelb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09>

HOME > 오피니언 > 여행정보

# 설연휴에 가볼 만한 분위기 있는 서울 도심 데이트코스

'연인과 함께 멀리 떠나지 않아도 특별한 데이트를 즐겨볼까'

양광수 기자 | 승인 2019.01.25 18:06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연인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은 여행자라면 고속도로가 꽉 막힌 여행지로 떠나기보단 서울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데이트 코스를 만끽해보자. 사진/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월 2일부터 시작해 6일까지 이어진 이번 설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연휴로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나 연인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은 여행자라면 고속도로가 꽉 막힌 여행지로 떠나기보단 서울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데이트코스를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

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한 곳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연휴기간동안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도심 속 데이트 코스이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중구 덕수궁로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한 곳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연휴 기간동안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도심 속 데이트코스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일반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설 연휴기간에는 천경자전, 시대유감 등 상설전시와 한묵, 이스트빌리지 뉴욕,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 등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정동길을 만날 수 있고, 서울시립미술관 자체가 1920년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이국적인 느낌을 전한다.

프로그래밍 세미나 살레코리아





서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공라운지에서 통해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겨보자. 사진/ 한국관광공사

서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공라운지에서 통해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스카이는 국내 최고 높이, 세계 5위 롯데월드타워 117층부터 123층까지 위치하고 있는 전망대 데이트 코스로 손꼽힌다.

전망대에서는 건물 2층 높이의 통유리를 통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스카이드ে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리바닥 전망대에서 아찔한 스릴을 느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스카이에서는 디저트카페와 프리미엄 라운지를 마련해 아늑한 공간에서 환상적인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울겨울 가장 뜨거웠던 서울 명소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빼놓을 수 없다. 사진/ 서울시청

대학로만큼 설연후에 가볼 만한 로맨틱한 여행지도 없다. 종로구 종로5가부터 혜화동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대학로는 패션, 맛집까지 준비한 복합문화지대이다. 특히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각종 예술단체와 공연장, 화랑 등이 밀집해 있어 데이트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설연후에도 연인은 물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볼 만한 공연이 펼쳐지며, 코미디부터 가족 뮤지컬, 어린이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만날 수 있어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블루스퀘어 안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는 카오스 북파크가 있다. 사진/ 인터파크 북파크

연인과 더욱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를 방문해도 좋다. 인터파크 그룹이 공연과 문화 발전을 위해 건립한 복합문화공간으로 1766석 뮤지컬 공연장과 1382석 콘서트 공연장, 두 개의 전용 대극장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블루스퀘어 안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는 카오스 북파크가 있다. 예술, 과학에 특화된 도서뿐만 아니라 강연장과 세미나, 갤러리 등을 통해 의미 있는 데이트도 즐겨보자.

양광수 기자 travel-bike@naver.com

<저작권자 © 트래블바이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